

## 세계일보

###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퇴진... 전작권 숨통 트이나

분담금·지소미아 등 정부와 이견  
전작권도 “아직 시기상조” 엇박자  
신임 라카메라와 관계 개선 주목

입력 2020-12-06 15:43:38, 수정 2020-12-06 18:20:22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한미연합사 제공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로버트 에이브럼스(사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의 후임으로 폴 라카메라(57·대장) 태평양육군사령관을 지명함에 따라 향후 한·미 군사외교 관계 변화에 관심이 모아진다.

2018년 11월 부임 이후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국인과 우리 군에는 다소 ‘불편한’ 행보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일례로 지난 4월 1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강행한 게 대표적이다. 당시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을 ‘불모’로 삼아 지지부진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한미군은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내며 협상 타결과 분담금 증액을 공개적으로 압박했으며, 그 중심엔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있었다. 한·미동맹보다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드’에 맞춘 행보였다. ‘뺏속까지 군인’이란 그의 이미지는 어느새 ‘정치군인’으로 탈바꿈했다.

코로나19가 확산 이후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공개 비난도 했다. 그런가 하면 유엔사에 별도 사전통보 없이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했던 한국군의 관행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엔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소미아가 없으면 우리(한·미·일)가 그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앞서 취임 직후엔 한·미 국방장관의 합의사항이었던 한미연합사 국방부 영내 이전을 무산시켰다.

올해 한·미연합훈련이 연기 혹은 축소 시행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 ‘한국군의 준비가 덜 됐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했다. 자신의 거취 문제가 정해진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 때도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전환) 시기를 추측하는 것은 시기상조(premature)”라며 “심지어 2년 뒤에도 시기를 짐작하기는 설부르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의 임기 내 전환 방침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못박은 것이다.

군 소식통은 6일 “미 의회 인사청문회와 인준절차를 고려하면 신임 사령관 부임은 내년 1월 초 바이든 정부 출범을 전후해 이뤄질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는 만큼 에이브럼스 때와는 다르지 않겠나”라며 긍정적인 변화를 예상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